달라이라마, 미국 하원 대표단 회담 가져

전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외 6명 다람살라 방문

박영빈 객원기자

정당을 초월한 미국 국회 하원 대표단이 달라이라마를 만나기 위해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했다. 이번 회담은 달라이라마가 무릎 치료를 위해 방미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6월 19일, 미국의 '포브스' '미국의 소리' 등 주요 언론들은 달라이라마와 하원의원들의 만남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전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의원과 미 하원 외무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의원이 이끄는 7인의 미국하원 대표단은 6월 19일 오전 인도 다람살라에 소재한 달라이라마의 관저에서 달라이라마와 회담을 가지고 이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대표단의 방문은 특히 전 하원의장과 현 외무위원장과 같은 하원에서 영향력이 강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집중됐다.

마이클 맥콜 의원은 달라이라마에게 회담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힘께 "달라이라마께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상

〈티베트-중국 분쟁 해결법〉 전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비판도

대가 누구이던지 마음의 평화, 타인에 대한 자비와 용서를 유지해 오셨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를 위한 실천"이라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그 중심에는 자비가 있으며 우리는 같은 권리를 가진 한 지구의 한 인류라는 형제다. 우리는 종교를 떠나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위해 함께 해야한다"며 평화와 자비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 하원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12일 하원에서 통과된 〈티베트-중국 분쟁 해결법〉의 사본을 달라이라마에게 전달했다. 이 해결법은 티베트인에 대한 모든 억압과 강압을 거부하고 티베트인들의 자결권을 확인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초당파적으로 압도적인 지지하에 통과됐으며 바이든 미 대통령도 곧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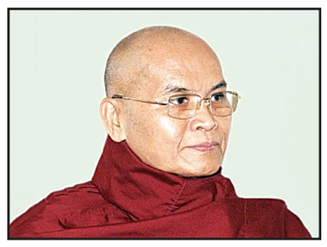
미하원 대표단과 회담을 가진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

회담 후 티베트 망명정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티베트 망명정부 수장, 펜파체링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의회에 감사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를 비롯한 모든 티베트인들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망명정부 청사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달라이라마는 분명히 오래 살 것이며, 이분이 세계에 퍼트린 메시지는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펠로시 전 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언급하며 "시 주석의 위세는 사라질 것이고, 그 누구도 시주석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달라이라마가 "순수한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라는 탈을 쓰고 반중 분리주의 활동을 펼친 정치적 망명자"라며 이번 하원 대표단의 방문을 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관련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미국 측이 달라이 도당(徒黨)의 반중국, 분리주의적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길 바란다. 티베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미국이 앞서 중국과 맺은 약속을 존중하며, 달라이 도당과의 접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원로스님, 군부 총격에 입적

군부, 반군으로 오인사격으로 인한 것 해명



미얀마의 존경받던 원로 스님이 군부 군인들의 총격으로 원적했다. 군부 군인들은 스님이 탄 차량은 반군으로 오인하여 사격한데서 생겨난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여론은 군부의 계획적인 범죄로 의심하고 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6월 20일 '미얀마 나우' 'UCA 뉴스'등이 대서특필했다.

지난 6월 19일, 현지시간 오후 1시 30분경 만달레이에서 남서쪽으로 약 72km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군인들 한 차량에 총격을 가했다.

현장에서 원적한 아신 무닌다비왐사 스님〈사진〉은 바고 지역의 중요한 사찰인 윈 네인미타욘 사원의 방장이자 미얀마의 출가자들을 감독하는 국가 승가위원회의 전 위원으로 미얀마에서 존경받는 원로스님이었다.

사고 직후 군부는 "반군과의 전투 중에 스님들이 탑승한 차량이 말려들었고 안타깝게 스님 한분이 불의의 변을 당하셨다. 당시 차량이 군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반군으로 오해를 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다음날 생존자인 구니카비왐사 스님은 군부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스님은 "군부의 말처럼 경고사격이나 정차지시는 전혀 없었다. 보안군들은 무차별 가격을 개시했다"고 폭로했다. 구니카비왐사 스님은 "현장을 촬영하려하자 군인들은 내 휴대폰을 압수했고, 군사캠프로 이송돼 5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스님의 폭로영상이 퍼지기 시작하자 군부 관계자는 윈 네인미타욘 사원을 방문해 군인들의 오인사격으로 인하여 무닌다비왐사 스님의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현지 여론은 좋지 않다. 소식통은 "스님은 지난 2021년 군부 쿠데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미얀마 불교계 최고위 원로스님 중 한 분 이었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군부가 계획적으로 스님을 살해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 불치사리 봉안 60주년 기념법회

7개국 불교 대표 · 중국 3대 종파 대표들 세계 평화 발원

전쟁에도 되찾은 기적 떠올리며
부처님 가피로 세계번영 기원

중국 베이징 영광사(靈光寺)에서 부처님 치아사리 봉안 60주년을 기념 법회를 봉행해 화제다.

지난 6월 21일 중국 일간 영어 신문 '중국일보'는 불치사리(佛齒舍利) 봉안 60주년 기념 법회 봉행 소식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불교, 티베트 불교, 상좌부 불교 승가 대표를 비롯한 외국 외교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9시쯤 한국,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7개국 불교계 대표와 중국 3대 종파(천태종, 화엄종, 선종) 대표가 모여 불치사리 봉안 탑 앞에서 부처님의 가피로 세계평화와 번영, 전 세계인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을 봉행했다.

기념 법회를 주최한 중국불교협회 대표 옌쥐 스님은 "불치사리는 불교 최고 보물이자 중국과 국제 불교계의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불치사리 봉안 탑을 재건한 이후 지난 60년간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찾아와 예를 표한다.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불자의 예법은 각기 다르나 모두 경건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매우 조화로우며 공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불교계는 전 세계 불교계와 협력해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며 불교의 정신인 자비와 평화, 지혜, 중도, 포용, 평등을 실천하고 있다. 타국과의 우호 증진, 세계 평화, 모든 존재의 안녕을 발원하며 각국의 문화 교류와 상호협력 등을 통해 인류 공동 미래를 위한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백서를 인용해 중국 불교계의 참여를 약속했다.



7개국 불교 대표와 중국 3대 종파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불치사리 봉안 6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사진출처=글로벌 타임즈

같은 날, 불치사리 사진전, 국제 불교 우호 교류 및 심포지엄 등의 행사도 함께 개최됐다. 베이징 영광사의 불치사리는 5세기 중반 신장의 한 승려에 의해 이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0년 의화단 운동 당시 열강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사찰과 불치사리 봉안 탑이 파괴됐다. 다행히 이듬해 파괴된 사찰 유적을 정리하던 승안 스님에 의해 불치사리가 발견되어 보관되었으며 1955년 베이징 광지사에 이운되어 모셔졌다. 1957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불치사리 봉안 탑 재건이 시작되었으며 1964년 6월 26일 완공되어 불치사리 봉안 법회를 봉행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印, 교과서 불교 왜곡·수정 청원

구자라트주 교과서 문제 제기
불교계 항의에 당국 수정 약속

6월 21일 인도 신문 '마디야맘'은 구자라트주의 불교계가 주립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기재된 불교 관련 내용에 대하여 오류와 왜곡을 수정 및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구자라트 공익위원회 위원들과 불자들은 구자라트 주립 교과서 편찬위원회에 현행 사회 교과서 내에 기재된 불교 관련 내용 중 12건의 오류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편찬 위원회는 불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불교 왜곡 서술 수정을 약속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사회 교과서는 구자라트 주에서 발행한 교과서로 인도에서 기원한 8개의 종교를 소개하는 '인도 문화와 공동체' 장이다.

구자라트 불교 아카데미(GBA) 라메시 뱅커 사무총장은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 중 일부는 티베트 불교의 관습이다. 예를 들어 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스승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의 스승들은 비구와 비구니로 불리며, 불교의 환생과 윤회관 역시 힌두교와 다르다. 경전 역시 산스크리트어나 한문으로 된 경전도 있기에 유일한 성전이라는 개념은 불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불교도에 관한 기술도 "힌두교와 달리 불교는 다양한 계급에서 귀의한 불자가 많다. 논란 여지가 있는 오류들에 대해 조속한 수정과 보완을 바란다"며 교과서 내 오기재 된 서술을 정확한 사실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구자라트 교과서 편찬위원회의 고사이 위원은 "교과서 공동저자들과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할 세부사항을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